

레일라 아부렐라의 『번역사』 대화 번역에 나타난 합쇼체의 진경화

원 은 하* · 김 성 희** · 전 주 영
(경운대)

1. 서론

소설 *The Translator*는 수단 출신의 스코틀랜드 작가인 레일라 아부렐라 (Leila Aboulela)의 1999년도 데뷔작으로 서구 사회에서 무슬림 여성으로서 이슬람의 가치를 지키며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탐구하는 작품이며, 출간 당시 스코틀랜드 유수의 문학상 예심 후보에 오르고 2002년 BBC에서 드라마로 각색되는 등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06년에는 『뉴욕타임즈』의 ‘올해의 주목할 만한 100권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대산문화재단의 외국문학 번역 지원작으로 선정되어 2013년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번역사』로 출간된 바 있다. 이 작품은 신앙과 사랑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고뇌를 시적으로

* 제1저자

** 교신저자

우아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지만, 당시 이라크전쟁, 아프간 침공 등 서구-이슬람 대결 구도로 인하여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무슬림 여성이 서구의 이데올로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면서 자아를 구축하고 결국 사랑을 쟁취한다는 반오리엔탈리즘적 서사를 전개한 것도 파격적이다. 또한 이 소설은 탈식민주의 담론이나 억압적인 가부장제를 탈피하려는 페미니스트적인 자유라는 서사에서 벗어나 여주인공의 내면에 집중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신선한 소설로 여겨진다(Hassan 2008: 303).

『번역사』는 번역문체의 관점에서도 도전적이면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작품의 세계는 남녀주인공인 레이(Rae)와 사마르(Sammar)의 세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 둘의 대화가 내러티브 전개에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두 주인공의 대화 어투가 어떻게 번역되는지가 소설 전반의 어조와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친족관계가 아닌 성인 남녀가 공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말투를 쓰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까?

성인이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손어법으로는 합쇼체와 해요체가 있다. 합쇼체는 격식체로 분류되고 아주높임에 해당되며 해요체는 비격식체로서 예사높임에 해당된다. 번역서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의 모든 대화문을 분석해본 결과 두 주인공의 대화는 합쇼체와 해요체를 교차로 사용하는 식으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성인 간의 대화에서 공손어법을 구사할 때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해 합쇼체와 해요체를 섞어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둘의 대화는 실제 있을 법한 대화와 비교하였을 때 눈에 띄는 특징이 발견된다. 뒤이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첫째는 합쇼체가 나타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격식성과 공식성이 높은 매우 제한된 맥락에서만 합쇼체가 사용된다(박지순 2019). 소설 대화의 경우 글로 표현되므로 실제 대화보다는 문어성이 높아 합쇼체가 더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원은하 외 2021) 작품 속에서의 대화 분량이 높다보니 합쇼체의 체감도가 높은 편이다. 둘째는 여주인공의 합쇼체 사용 정도이다. 현실 대화에서 뉴스보도 등 특정 담화에서는 합쇼체와 해요체 사용에 대하여 성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최윤지 2018), 소설대화에서 여전히 합쇼체는 남성어, 해요체는 여성어라는 전형성이 있다(강현석 2011; 김정호 2008; 장경현 2006: 73-74). 따라서 여주인공의 빈번한 합쇼

체 사용 및 때에 따라서 남주인공보다 합쇼체의 사용이 높아지는 것은 일탈적인 현상으로 해석할만한 가치가 있다.

번역문체의 관점에서 이러한 일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은, 번역의 전문성을 의심해볼 수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첫째, 『번역사』는 대산문화재단의 세계문학번역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우수한 심사평을 받은 작품이다¹⁾. 둘째, 『번역사』의 다른 인물 간의 대화나, 번역자의 차기작에 구사된 대화들은 어색함 없이 적절한 대화체로 번역되어 있다. 셋째, 번역자는 『번역사』의 남녀주인공의 관계와 어투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주인공의 어투와 관련하여 실시한 번역자와의 이메일 인터뷰(2020년 11월 10일)에서, 번역자는 두 남녀 주인공이 대립되는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경어를 선택했음을 밝혔다. 따라서 『번역사』의 남녀주인공이 사용하는 종결어미는 번역의 미숙함에서 발생한 결과라기보다는, 어투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등장인물 간의 관계에 특별한 정서를 부여함을 인지한 번역자의 선택²⁾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번역 텍스트의 문체는 “작가(번역가)의 선택에 의한”(Boase-Beier 2014: 5) 결과로서, “번역을 통한 조정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다”(Malmkjær 2004: 22)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자의 선택은, 그 자체가 문체 비평의 대상으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번역에서 종결어미의 선택과 관련하여 그 적절한

성이나 효과를 비교하고 판단할 원천언어(영어)의 언어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결어미의 선택은 비언어적인 상황 맥락에 의존하므로 번역자는 원문 속 등장인물 및 그들의 관계,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는데 대체로 그 정보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원문의 언어적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번역자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까닭에 『번역사』의 대화에 사용된 종결어미는 번역자의 원문해석 및 번역 의도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설 대화 번역문에서 나타나는 합쇼체가 번역문체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번역사』의 남녀 대화에 사용된 합쇼체와 여성 캐릭터가 사용하는 합쇼체를 번역자가 시도하는 전경화(foregrounding)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것이다. 2장에서는 전경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번역문체에서 전경화가 함의하는 바를 간략히 논의한 뒤, 합쇼체의 화용적 의미와 소설 대화에서의 문체적 역할에 대하여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번역사』의 남녀주인공 대화문을 중심으로, 합쇼체의 빈도, 사용맥락, 기능 등을 분석한다. 특히 소설 대화의 문어성이라는 특성과 『번역사』의 대화문의 서술성이라는 관점에서 합쇼체의 비규범적인 출현을 설명하며, 『번역사』에 대한 기존의 비평들이 합쇼체의 전경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설 속 대화의 번역: 존재등급 종결어미의 문체적 활용’(원은하, 김성희, 전주영 2021)의 후속 논문으로서 동일한 이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합쇼체의 문체기능에 대한 보다 확장된 논의로 기획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번역문체로서의 전경화와 합쇼체

2.1 번역문체로서의 전경화

‘전경화’는 “문학적이고 미학적인 목적에 의해 추동되는 텍스트 패턴의 형식”(Simpson 2004: 50)을 일컫는 용어로서, 단어나 문법 등의 요소의 “일탈적

1) 대산문화재단 세계문학지원작 선정시, 『번역사』는 “작품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문장의 의미와 뉘앙스를 우리말로 옮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평을 들었다. 심사평 전문은 아래 참고.

http://www.daesan.or.kr/news.html?Table=ins_bbs1&mode=view&uid=392&page=15

2) 심사과정에서 번역자의 개인적 특성도 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역자의 기본 정보를 명시한다. 역자 이윤재는 60대 남성이며 경제 관료 출신으로 본 번역서가 첫 데뷔작이다. 역자의 물리적, 사회적 배경이 문체의 격식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에 일부 공감하지만, 이 역시 역자의 차기 번역작과의 비교, 연령대별 역자 비교, 타 번역자와의 비교 등 다각적인 면에서의 분석을 통해서만이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또한 원문의 장르와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문체를 구사하는 번역자들의 문체 양상을 고려할 때 『번역사』에 나타난 합쇼체는 번역자 문체가 아닌 번역 문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용(deviance)”이나 “반복(parallelism)”을 통하여 시도된다(Gregoriou 2014: 89). 이러한 언어적 일탈이나 반복이 문체로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독자의 인지를 통하여 문체 표지가 포착되어야 하며, 이러한 표지들이 “문학적으로 결속력이 있는 해석”(Leech and Short 2007: 41)에 이를 때 전경화의 문학적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텍스트에도 전경화가 시도된다면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보즈-바이어(Boase-Beier 2014: 89-90)는 문학 번역의 관점에서 전경화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첫째는 유려함이 부족하고 영성 한 ‘번역투’, 둘째는 베누티(Venuti)의 가시성이라는 맥락에서의 ‘잔여태’, 셋째는 화자가 특정한 어구나 문단 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적 단서’로서 전경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번역투는 번역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원문의 간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규범적인 목표어로서, 국내에서 출판되는 영한번역 학습 교재들은 번역투를 최대한 지양하는 방식의 번역 전략들을 소개한다. 따라서 문학 번역자들은 문학적인 특색을 드러내기 보다는 평이하고 읽기 쉬운 번역문을 만들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역시 존재해서, 정영목은 번역을 “불완전하고 유동적인 …[중략]… 양 언어가 통합되어 완전한 언어로 나아갈 가능성이 배태되는 곳으로, 즉 제3의 언어 또는 번역의 언어가 자리 잡는 곳”(2018: 164)으로 해석하고, 더 나아가 번역이 창조하는 제3언어가 목표어의 외연을 확대하는 순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번역가의 임무라고 주장한다(148).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베누티는 잔여태라는 개념을 통해 “(소수)문학 텍스트들이 다수 언어에 끊임없이 변화를 가하”여 “언어의 근본적인 혼질성을 한층 증대”(임호경 2006: 24)시킬 수 있는 번역의 역할을 강조한다. 인지시학 관점에서 번역문체를 연구하는 보즈-바이어는 목표언어 규범에 충실한 글쓰기가 “문학적 읽기라는 속성과 양립할 수 없”(Boase-Beier 2014: 90)다고 하면서 번역자가 전경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고유의 ‘의사소통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번역문체를 통하여 문학적 경험을 선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지시학을 바탕으로 번역문체를 연구하는 한미에 역시 번역가가 “문체를 통해 텍스트에 함축된 의미, 저자의 인지 상태와 태도, 미학적 효과를 재창조”(2011: 207)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표텍스트에서 전경화되는 언어 항목의 비규범적인 성격에 대하여 번역투나 오역으로 치부하기보

다는 해당 항목이 문학적 효과를 위해 선택된 문학 언어로서 ‘문학적인 결속력’을 가지는지 그 가치를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2.2 종결어미의 문체 기능

한국어의 종결어미에는 서법과 상대높임법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다양한 표지로 세분된다. 서법표현이나 상대높임의 체계는 언어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서법 중심으로는 노상희, 박기성(2008), 김혜영(2019) 등이 있고 상대높임법 중심으로는 권은희, 성초림(2014), 김혜경, 윤소영(2019), 원은하, 김성희, 전주영(2021)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종결어미의 선택을 “작가의 서술전략”(권은희, 성초림 2014: 25)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김혜영(2019)은 종결어미의 선택을 “글쓰기의 문체”(157)로 보고 있다. 또한 김혜경, 윤소영은 “관계와 공간의 변화에 따른 어투의 변화”(2018: 29)를 분석하면서 종결어미가 인물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된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원은하 외(2021)는 종결어미의 문체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논하였는데, 존대등급 종결어미인 합쇼체와 해요체에 초점을 맞추어 화용론적 의미와 기능을 대조한 뒤, 번역된 소설 대화에서 합쇼체의 활용 빈도가 더 높게 관찰되는 현상을 일상 대화와 소설 대화와의 구어성의 차이로 해석하고 있다. 상기 논문에서 정리한 합쇼체와 해요체의 화용적 의미, 그리고 번역된 소설 대화에서 합쇼체의 문체 기능은 합쇼체의 전경화 전략을 논의하는 데 유용한 개념들을 제공하므로 그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겠다.

우선, 일상 담화에서 사용되는 존대등급 종결어미의 특징은, 해요체의 범용, 합쇼체와 해요체의 교차현상, 하오체의 소멸로 정리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 구어에서 하오체는 거의 사라졌으며, 무표적인 공손어법으로 해요체를 사용하고 공식성과 격식성이 높은 특정한 담화 상황에서만 합쇼체를 사용한다. 원은하 외(2021: 84-87)는 합쇼체와 해요체의 사용맥락을 대인적 맥락, 물리적 맥락, 인지적 맥락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두 화제는 서로 대조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문체적 특성도 대조적인 면을 보인다.

<표 1> 해요체와 합쇼체의 화용적 의미(원은하, 김성희, 전주영 2021: 87에서 인용)

구분	해요체	합쇼체
지향성	청자지향성	화자지향성
정보 전달	구정보 / 주관적	신정보 / 객관적
기능과 어조	공감과 감정 표현 / 친밀	진술과 전달 중심 / 진지
거리감	유대감 강조 / 연계성	위계성 강조 / 단절성
격식성	낮음	높음

<표 1>에 나타난 두 화계를 대화참여자의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요체는 수평적 관계, 즉 유대감을 강조하고, 청자지향적이며 공감과 감정을 표현하여 상대적으로 친밀한 어조를 형성하고 격식성도 낮은 편이다. 반면 합쇼체는 수직적 관계, 즉 위계성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권위와 힘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화자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강하므로 화자지향성이 높으며 진지한 어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원은하 외(2021)에서는 영한번역 소설에 나타나는 대화에서 현실 구어와는 다른 존대등급 경계어미의 사용규범이 나타남을 지적한다. 해요체가 구어성이 강한 반면, 합쇼체는 문어적이고 서술적인 성격이 강하여 글로 표현되는 대화에서는 합쇼체를 더 다양한 담화상황에서 사용한다는 것이다(90). 그러면서 번역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합쇼체가 ‘현실성의 재현’, ‘정보전달’, ‘인물설정’이라는 기능을 한다고 밝힌다(91-101). 글로 재현되는 인물의 개성은 한정적 이므로 번역자들은 합쇼체와 해요체를 통하여 남성어와 여성어를 구분하거나(96) 주인공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합쇼체를 활용하기도 한다(98).

이렇듯 합쇼체는 번역문에서 실제 담화 상황의 어법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문학적 담화의 창조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심슨(Simpson 1997)은 문학이 기존의 언어사용역에 따른 언어 사용 규범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서 “문학적 담화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산출하는 사용역들을 융합하여 흡수하는 힘”(성창섭 2001: 29)이 있으므로 문학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문체들이 허용된다고 논한다. 또한 프루네(Freunek 2007, Brumme and Espunya 2012: 13-14에서 재인용)은 특정한 상황에 맞추어 구성되는 일상 대화와는 달리 소설 대화는 “정반대의” 과정을 거친다고 언급한다. 즉, 작가가 선택한 언어 형태에 따라 특정한 의사소통 상황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오체는 실제 구어에서는 거의 사멸되었지만 번역문에서는 나름의 문체 기능을 하고 있다(박재연 2020: 76).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문에 합쇼체가 현실 대화 상황에 비하여 더 많이 등장하는 현상은 구어의 문어화로 인한 정보성과 격식성의 상승효과(원은하 외 2021)와 더불어, 원문을 해석하여 다시 쓰는 번역자가 특정한 문학적 효과를 재현하려는 과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소설 속 남녀 인물의 대화에 사용된 합쇼체와 해요체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번역문체가 원문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작품 내용

*The Translator*는 무슬림인 사마르와 진보적 성향의 중동 문제 전문가이자 대학교수인 레이 사이의 러브스토리이다. 수단 출신의 무슬림인 여주인공 사마르는 몇 년 전 남편을 사고로 잃은 30세의 과부로, 어린 아들을 고향인 하르툼에 맡기고 홀로 스코틀랜드의 에버딘에 살고 있다. 그녀는 한 대학의 번역사로 고용되었는데, 진보적 성향의 저명한 중동 문제 전문가인 레이 교수가 그녀에게 아랍어로 된 정치선언문의 번역을 의뢰하면서 두 인물의 관계가 시작된다. 이슬람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마르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레이는 종교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며, 크리스마스 연휴에 각자 떨어져서 전화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 간의 결혼만 가능하기에 사마르는 레이에게 개종을 요구하며 청혼을 하는, 무슬림 여성으로서의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레이는 결혼을 목적으로 개종할 수는 없다며 거절한다. 사마르는 수치심과 좌절감에 고향인 하르툼으로 돌아가 전남편의 어머니와 아들과 지내게 된다. 사마르는 하르툼에서 지내며 레이에게 한 청혼이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위한 개종 요구였음을 깨닫고 참회하며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레이 역시 이슬람을 배우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깨닫는다. 다시 말해 결

말부에서 기적과 같은 레이의 개종으로 둘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식을 신앙으로 번역하는 것은 오직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즉 기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Hassan 2008: 308)는 저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매력은 “주체적 여성을 표상하는 번역가 무슬림 여성과 감성적 남성을 표상하는 백인 오리엔탈리스트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새롭게 재현”(차희정 2018: 113)하여 전통적인 낭만적 사랑이야기의 구조를 비틀고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3.2 연구 방법

3.2.1 작품의 구성 및 담화 맥락

『번역사』의 대화문에 사용된 종결어미의 분석을 위하여 남녀주인공인 레이와 사마르 간의 대화 상황을 중심으로 각 장별 소설의 구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이 소설은 2부 23장으로 이루어지는데, 1부는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2부는 수단인 하르툼을 무대로 한다. 남녀 주인공의 대화가 등장하는 장은 총 13개로 1부에 12개 장, 2부에 1개 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장들을 중심으로 각 장별 주인공들의 대화에 대한 주요 담화 맥락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원은하 외(2021: 84-85)에 따르면 대화에서 종결어미를 선택할 때 대인적 맥락(대화 참여자 간의 사회적 관계), 물리적 맥락(대화 장소, 담화 장르 등), 그리고 인지적 맥락(화자의 담화 지향성)을 고려한다고 한다. 우선 레이와 사마르 간의 대인적 맥락은 <표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 2> 레이와 사마르의 대인적 맥락

구분	레이	사마르
성별/연령	남 / 40대 중반 추정	여 / 30세
출신	스코틀랜드	수단
언어	영어	영어, 아랍어
종교	무교	이슬람
직업	대학교수	번역사
관계	고용인	피고용인

<표 2>에 따르면, 레이는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스코틀랜드인 남성으로

영어를 사용하며 종교는 없고 진보성향의 대학 교수이다. 사마르는 수단 출신의 30세 무슬림 여성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하여 7세까지 살다가 그 이후 청소년기를 하르툼에서 보낸 후 남편과 다시 스코틀랜드에서 살았으므로 영어와 아랍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언어 구사능력으로 사마르는 번역사로 대학에 고용되어 있다. 한편 레이와 사마르는 소설 초반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한국 사회의 규범상 레이가 사마르보다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대화에 사용되는 기본 화제는 서로 존대등급인 합쇼체와 해요체로 설정되어 매우 정중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번역자의 의도대로 상호 존중의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레이와 사마르의 대화가 등장하는 13개 장을 중심으로 물리적 맥락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레이-사마르 대화에서의 물리적 맥락 및 친소관계의 변화

장	장소	방법	장르	친소관계
1	공원	대면	업무	소
2	레이의 집	대면	사적	소
3	공원	대면	업무	소
4	각자의 집	비대면/전화	업무/사적	소
5	각자의 집	비대면/전화	사적	친
6	각자의 집	비대면/전화	사적	친
7	각자의 집	비대면/전화	사적	친
9	병원	대면	사적	친
10	각자의 집	비대면/전화	사적	친
12	학교 내 휴게실	대면	업무/사적	친
13	사마르 사무실	대면	사적	친
14	레이 사무실	대면	사적	친
23	하르툼 사마르 집 앞 마당	대면	사적	친

레이와 사마르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물리적 맥락으로 대화 장소, 대화의 방법(대면/비대면), 대화의 장르(공적/사적)를 설정하였다. <표 3>의 가장 큰 특징은 4장~7장까지 전화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이 기간 동안 두 주인공의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전화는 남녀 간 내외가 엄격한 무슬림인 사마르가 레이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레이와 데이트를 할 수 있

는 수단이 된다. 또 다른 특징은 담화 장르로서, 업무 관계에서 시작을 하지만 대화의 내용은 주로 상대방의 과거나 종교에 대한 입장 등 사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업무 자체도 아랍어로 쓰인 경전이나 정치 선언문 등의 번역이므로 종교를 주된 소재로 나누는 이들의 개인적인 대화는 업무와 사적 영역을 넘나드는 성격을 지닌다.

3.2.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번역문에 나타나는 합쇼체의 전경화 현상을 번역문체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정성적 연구이다. 그러나 “번역가의 문체적 특징”은 “대상 텍스트에서” 문체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최희경 2016: 19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번역사』에서 남녀 주인공이 사용하는 합쇼체와 해요체의 분포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기초적인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작품의 1부는 스코틀랜드의 애버딘, 그리고 2부는 수단 하르툼을 배경으로 한다. 애버딘은 사마르의 직업이 있는 장소이므로, 사마르가 만나는 사람들은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공적인 사회관계가 주를 이룬다. 1부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주요 등장인물들은 주인공인 사마르와 레이, 그리고 레이의 조교이자 사마르의 친구인 야스민, 레이에게 박사 논문 지도를 받는 다이엔이 있다. 반면 2부는 사마르의 가족이 있는 수단 하르툼을 배경으로 하므로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대화들은 거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일반 담화에 속한다. 합쇼체와 해요체가 비친족 관계의 일상적 사회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주로 1부(1장~15장)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친족 간의 대화만이 등장하는 2부(16장~23장)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다시 만나게 되는 마지막 23장만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대화문은 직접인용의 표시가 있는 문장으로 제한하며 직접인용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독백은 제외하였다. 각 대화문은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계체, 해체, 해라체, 기타(미완성 발화 등)로 화계를 7가지로 구분하여 종결어미의 실현빈도를 집계하였는데, 큰따옴표로 묶이는 단위가 아니라, 문장을 기준으로 회수를 계산하였다. 현실 대화에서의 실현 맥락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표 2>와 <표 3>과 같이 등장인물의 성별, 연령, 지위, 친소관계, 대화장소, 담화 방법, 담화장르를 참고하였다.

4. 분석 결과

4.1 『번역사』에서 합쇼체의 출현 빈도

『번역사』의 남녀 주인공 사이의 대화에 나타난 종결어미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인 총 16개 장에서 직접 발화로 사용된 문장은 1,241개이고, 그중 레이와 화자인 것은 556개, 사마르가 화자인 것은 511개로 이 두 주인공의 발화가 대화문의 86%를 차지하며 소설 전개의 큰 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이와 사마르 간의 대화가 등장하는 13개 장(1~7장, 9~10장, 12~14장, 23장)으로 좁혀서 두 인물 간의 대화의 빈도와 종결어미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레이와 사마르 간 대화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출현 횟수

	레이	사마르
합쇼체	250 (51.4%)	159 (39.4%)
해요체	195 (40.1%)	198 (49%)
기타	41 (8.5%)	47 (11.6%)
합계	486 (100%)	404 (100%)

<표 4>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두 인물 모두 합쇼체의 사용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남주인공인 레이의 경우 합쇼체의 사용 비중이 51.4%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해요체(40.1%)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종결어미 없이 문장을 끝맺는 경우가 많았고, 하오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여주인공인 사마르의 경우에는 해요체가 49%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합쇼체는 39.4%가 사용되었다. 기타의 경우는 역시 종결어미 없이 문장을 끝맺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화 중 글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구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다’체가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

합쇼체의 출현 빈도에 관련하여, 박지순(2019: 111)의 “상관적 대화의 화계별 출현빈도”에 따르면, 구어에서 합쇼체의 사용 비율이 10%가 넘지 않으며, 강현석(2011: 12)의 연구에서도 합쇼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발화 중에서 남성이 16.1%, 여성이 6.3%에 불과하다.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하여 존대등급

의 종결어미가 다소 높게 출현하는 경향을 감안한다고 해도(김혜영 2008: 48)³⁾ <표 4>에서와 같이 합쇼체가 전체 대화의 약 40~50%를 차지하는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남성이 여성보다 합쇼체를 많이 쓴다는 규범은 소설 속에서도 지켜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레이와 사마르의 대화에 나타난 합쇼체와 해요체의 비율을 각 장별로 살펴보겠다.

<표 5> 각 장별 레이와 사마르 간 대화의 종결어미 출현 횟수

인물 장	레이				사마르			
	합쇼	해요	기타	합계	합쇼	해요	기타	합계
1	1(50)	0	1(50)	2	11(50)	10(45.5)	1(4.5)	22
2	0	0	2(100)	2	0	2(100)	0	2
3	21(52.5)	16(40)	3(7.5)	40	12(30.8)	25(64.1)	2(5.1)	39
4	45(57)	30(38)	4(5)	79	7(17.9)	12(30.8)	20(51.3)	39
5	14(50)	13(46.4)	1(3.6)	28	22(50)	17(38.6)	5(11.4)	44
6	6(23.1)	17(65.4)	3(11.5)	26	3(21.4)	11(78.6)	0	14
7	2(50)	2(50)	0	4	0	3(100)	0	3
9	24(32)	45(60)	6(8)	75	11(20)	40(72.7)	4(7.3)	55
10	21(75)	5(17.9)	2(7.1)	28	1(8.3)	11(91.7)	0	12
12	25(55.6)	16(35.6)	4(8.8)	45	12(38.7)	17(54.8)	2(6.5)	31
13	3(25)	6(50)	3(25)	12	0	5(100)	0	5
14	30(56.6)	17(32.1)	6(11.3)	53	65(69.9)	24(25.8)	4(4.3)	93
23	58(63)	28(30.5)	6(6.5)	92	15(33.3)	21(46.7)	9(20)	45
	총 문장 수 486				총 문장 수 404			

*괄호는 비율(%)을 나타냄

<표 5>에서는 각 장별로 레이와 사마르가 사용한 종결어미의 출현 빈도와 비율이 나타나 있다. 각 장별로 합쇼체와 해요체의 사용비율을 보면 대체로 레이의 경우 합쇼체가 해요체보다 많이 사용된 경우가 8개 장에 이르는 데 반해, 사마르의 경우는 3개 장에 불과하다. 여성인 사마르가 해요체를 더 적극적으로

3) 김혜영(2008)은 번역문과 비번역문에 나타나는 높임 표현의 특징을 계량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 때 합쇼체에 해당하는 ‘아주높임(-습니다)’의 경우 비번역문에는 약 5.06%, 번역문에는 약 9.78% 등장하여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48). 그러나 김혜영의 연구 자료에는 문학과 일반교양 등 다양한 장르가 섞여있으며 대화문과 서술문을 별도로 구분하여 집계하지는 않았으므로 대화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사한다는 점은 기존의 합쇼체와 해요체의 사용 패턴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인물별로 대조를 해보면 14장에서 사마르가 합쇼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69.9%로 레이보다 더 높다. 대체로 사마르는 해요체의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합쇼체의 사용 비율이 레이보다 높은 14장의 수치는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번역 현상에 대한 배경과 효과를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소설 속 레이와 사마르의 대화에 사용된 종결어미를 분석한 결과 남녀 캐릭터 모두 합쇼체의 사용 비중이 높았고, 특히 14장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합쇼체 사용 비율이 남성 캐릭터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소설 번역본에서 합쇼체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현상, 그리고 14장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합쇼체를 많이 사용하게 한 현상에 대하여, 합쇼체와 해요체의 화용적 문체 특성, 소설 속 대화의 특성 그리고 작품의 기존 비평을 중심으로 번역문체의 관점에서 그 효과를 논의한다.

4.2 합쇼체의 전경화를 통한 문체 효과

4.2.1 대화의 화자지향성과 서술성

공손어법을 사용하는 대화에서 합쇼체와 해요체가 교차로 사용됨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성기철 1985; 이경희 2015), 소설과 같은 인위적인 대화에서 특정 종결어미를 결정하는 데는 작가가 판단한 화자의 인지적 맥락이 큰 영향을 미친다(Strauss and Eun 2005). 화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객관적 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화자지향성이 높고, 화자가 청자를 고려하며 상호 공유하는 경험이나 감정을 교류하는 경우 청자지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합쇼체는 화자지향성이 높고, 해요체는 청자지향성이 높다(Yoon and Lee 2012).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두 주인공은 합쇼체의 사용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인물 간의 화계를 결정하는 번역자는 대화 내용 자체가 정보성과 서술성이 높으므로 합쇼체를 적극적으로 구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두 인물 간의 어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ST1

She said, "What are the other reasons that you admire Islam?" ...[중략]...

'... these theories explain why capitalism developed ultimately in Europe

and not in other earlier civilisations which were more sophisticated. Civilisations like Muslim Spain or the Ottoman empire. One theory is that for capitalism to grow there must be an accumulation of wealth through inheritance that comes from dynasties and families surviving over a long time. But the sharia's laws on inheritance and charity fragmented wealth so much that the necessary accumulation never took place. There was a blocking effect, like an internal thermostat or switch that stopped this excess. I think of it as a balance, something that kept things reasonable, steady. And now I have to rush because I have a class.'

After he left, she sat for a few minutes playing with the plastic spoon in her empty cup. Why was it that even though he said such positive things, she was not completely reassured. (106-107)

TT1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이슬람을 존경하는 또 다른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중략]...

“.....이 이론들은 왜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유럽에서 발전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보다 정교한 타 지역의 문명, 즉 무슬림 스페인이나 오스만 제국과 같은 문명에서는 발전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하나의 이론은,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오랜 기간 생존하는 왕조나 가문에서 유래하는 부(富)의 상속을 통한 축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샤리아의 상속에 관한 법률과 자선 행위는 부를 아주 잘게 쪼개므로 (자본주의 성장에) 필요한 축적 과정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부에 설치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나 스위치처럼, 과도한 현상을 중단시키는 하나의 제어장치가 있는 거지요. 나는 이것이 사물들을 분별 있게, 안정되게 잡아 주는 하나의 균형추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제 수업이 있어서 서둘러야겠어요.”

그가 떠난 뒤 그녀는 빈 컵에 들어 있는 플라스틱 스푼을 잠시 만지작거렸다. 그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데도 그녀에게 충분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155-56)

『번역사』에 사용된 대화는 길이와 형식면에서 일상 대화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한 인물의 발화의 양이 매우 길어서 한 문단에서 몇 문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TT1은 두 인물이 친밀해진 후인 12장에서 나누는 사적 대화로 사마르는 레이를 미래의 남편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는 교수로서 학자의 관점에서 이슬람에 대한 학술적 해석을 할 뿐이다. 이렇듯 『번역사』에는 학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슬람에 대하여 설명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필립스(Phillips)에 의하면, 『번역사』는 “비무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2012: 69)로서 이슬람 세계관에 무지한 독자들을 위하여 이슬람에 대한 상당한 설명이 들어가 있으며 종교에 관한 정보들은 사마르와 레이와의 대화를 통해 전달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의 대화는 화자지향성이 강하며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교류의 특성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독자도 일종의 청자로서 해당 정보를 접하게 된다.

대화 형식면에서도 『번역사』의 대화 구성은 일상 대화와 차이가 있다. 일상 대화는 대응쌍(adjacency pairs)을 기본 단위로 하여,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교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번역사』의 대화는 TT2와 같이 사마르 또는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화의 일부만 직접화법을 통하여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ST2

‘That night,’ she said to Rae on the telephone, ‘that night like nearly every night, the grown-ups sat in the garden. When I got older I was allowed to sit with them, on seats with cool cushions and above us all the stars. Insects attacked the garden lights, those that got too close became black dots sticking to the hot glass. The garden was filled with sound: laughter and loud narratives, the ceaseless croaking of frogs, the softer sounds of grasshoppers. And from the square, the stray dogs howled, a sound of faraway sadness.’

On that first night in Khartoum, she wandered around the garden with Hanan and Tarig, to the back of the house where there was no garden, inside the house, upstairs to the roof and its row of empty beds. (48)

TT2

“그날 밤” 그녀가 전화로 레이에게 말했다. “그날 밤 어른들은 거의 매일 밤 그렇게 하듯이 정원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도 더 나이를 먹은 후엔 그들과 함께, 시원한 쿠션이 놓인 의자에 앉는 게 허락되었지요. 머리 위 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날벌레들이 정원 조명등을 향해 날아들고

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벌레들은 뜨거운 유리 표면에 달라붙어 검은 점으로 소멸되었지요. 정원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소와 떠들썩한 대화, 개구리들의 끊임없는 울음소리, 그보다 부드러운 여치 소리, 그리고 광장으로부터는 어슬렁거리는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 아련한 슬픔의 소리가 들려왔더랬죠.”

하르툼에서의 그 첫 밤, 그녀는 하난, 타리그와 정원 주위를 서성대다 정원이 없는 집 뒤편까지도 가보았다. 또 집 안에 들어가 지붕까지 이어진 위층에 빈 침대들이 늘어진 것도 보았다. (72)

일상 대화라면 TT2에서 사마르가 자신의 과거와 고향에 관한 얘기를 끝낸 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대화 상대방인 레이가 어떤 대꾸를 하게 마련인데, 곧 바로 사마르는 자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 때의 일을 혼자서 회상하고 있다. TT1도 마찬가지로이다. 레이가 수업 때문에 가봐야겠다고 대화를 마무리한다면 당연히 끝인사가 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레이의 말이 끝난 직후 바로 사마르의 내면으로 초점이 전환되는 서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화자의 얘기가 끝난 다음 그에 대한 반응이나 대응이 TT1처럼 청자의 내면 서술로 대체된다든지, TT2처럼 갑자기 장면이 전환된다든지 하는 식의 서술 방식은 소설 장르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법이다. 장면전환이나 사마르의 의식을 따라 편집되는 대화의 파편들은 인물 간의 대화로 기능한다기보다는 사마르의 기억에 의존한 서술의 연장으로서 서술자 또는 작가가 독자에게 건네는 정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레이와 사마르의 대화는 화자지향성과 서술성이 높으므로 번역자는 합쇼체와 해요체를 적절하게 교차하여 대화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합쇼체의 전경화는 일정부분 원문의 대화가 지니는 서술적 속성을 번역자가 인지하여 드러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번역자가 해석한 장면들은 원문의 사색적이고 진지한 어조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4.2.2 두 주인공의 심리적, 물리적, 사회적 거리감

이 소설은 여주인공 사마르의 내면을 중심으로 3인칭 시점에서 전개되며, 기존의 탈식민주의 사관의 지배자-피지배자 담론이나 억압적인 무슬림의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려는 페미니스트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세상의 욕구와 이슬람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수련에 집중하는 한 여성 무슬림의 내면적인 이야기이다

(Hassan 2008: 303). 하산(Hassan)은 이 소설이 “문화적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번역의 가능성과 한계”(305)에 대한 것이라면서 번역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사마르는 번역을 통해 이슬람 문화와 서구 문화의 중재를 시도하지만 수단인이 유럽인에 가진 선입견, 그리고 스코틀랜드인의 무슬림에 대한 선입견의 간극은 번역으로 쉽게 좁혀지지 않으며 결국 “이 소설 속에 나타나는 번역의 측면들은 소설의 이념적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번역과 개중사이의 관계라는 문제로 수렴된다”(305).

ST-TT3은 레이와 사마르의 문화적, 심리적 거리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종교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드러낸다.

ST3

He said it was her soup, her soup was the catalyst that made him recover. He was back working a full day, he no longer coughed.

She said, ‘Allah is the one who heals.’ She wanted him to look beyond the causes to the First, the Real.

‘When I was young,’ he told her, ‘there were books that did not impress me much. Picture books of Angels with blue eyes and wings, naive animals in pairs boarding a ship, too many fluffy clouds.’

When she was young there were the words of the Qur’an, no pictures of Angels. Words to learn by heart and recite in treacherous streets where rabid dogs barked too close. ‘Say: I take refuge in the Lord of daybreak . . .’, ‘Say: I take refuge in the Lord of humans . . .’ And at night too, inside the terrifying dreams of childhood, she had said the verses to push away what was clinging and cruel.

He said, ‘That is real, nothing trivialised, diminished to the status of fairy-tales.’ And he looked disappointed when he said that, distracted by thoughts he would only condense for her. ‘History diminished to the status of fairy-tales,’ he said. Covered with illusions, grid-lines, rules. (99)

TT3

그녀가 손수 만들어준 수프 덕분에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그녀의 수프가 건강 회복의 촉진제였다고 그는 말했다. 이제 그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기침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알라이십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눈에 보이는 근거를 넘어서서 초월적 실재(實在)를 바라보기를 원했다.

“어린 시절의 내게, 별로 감명을 주지 못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푸른 눈빛에 날개가 달린 천사들, 한 쌍씩 배에 오른 착한 동물들, 솜털 구름이 너무 많은 그림책들이 그랬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에는 코란의 말씀은 있었지만 천사들의 그림은 없었다. 미친 개들이 아주 가까이 짖어대는 불안한 거리에서 가슴에 익히고 암송할 말씀이었다. “말하라, 나는 새벽의 하느님에서 안식을 취한다……” “말하라, 나는 인간의 하느님에서 안식을 취한다……” 그리고 밤에도, 어린 시절의 그 무서운 꿈속에서도 역시, 그녀는 자기 몸에 들러붙는 잔인한 두려움을 밀어내려고 그 시가들을 읊조리곤 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평범해진 게 아니라, 동화(童話)의 지위로 축소된 현실입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는 마음 아파 보였고, 오로지 그녀를 위해 자기의 생각들을 간추리면서 심란한 모습이었다. “동화의 지위로 축소된 역사.” 그가 말했다. 착각과, 감시망과, 규칙으로 뒤덮인. (145)

TT3에서 몸이 아픈 레이에게 사마르가 수프를 만들어주자, 레이는 “손수 만들어준 수프 덕분에 건강이 회복되었다”면서 사의를 표한다. 그러나 사마르는 생로병사가 알라에게 있다고 대응한다. 또한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하여 사마르는 종교적 세계관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기 몸에 들러붙는 잔인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종교적 이야기에 의존한다. 반면 레이에게 이러한 종교적 이야기는 “동화의 세계로 축소된 현실이자 역사”에 불과하다. 이처럼 신앙으로 이슬람을 대하는 사마르와 세속적 학자인 레이의 이념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은 소설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두 인물의 대화와 사마르 관점에서의 서술을 통해 독자들에게 드러나며 두 인물 간의 대립된 관점은 좁혀지지 않는 심리적 거리를 발생시킨다.

한편 무슬림 여성이 비무슬림 남성과 공개 연애를 한다는 것은 무슬림의 관점에서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두 인물의 관계는 매우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진전되는데, 극중에서는 신체적인 접촉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 관계의 진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면대면 대화가 아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물리적

제약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이들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된 소재를 종종 이용하며 매우 진지한 태도로 일관하며, 이슬람에 대한 각자의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므로 사적 담화라고 하더라도 대화의 주제는 가볍지 않아서 시종일관 일정한 격식과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다.

레이와 사마르는 인종과 문화가 다르다. 레이는 백인이자 기독교 문화의 영향에서 자란 무신론자이고, 사마르는 아랍인으로서 애버딘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슬람 문화에 속한다. 이들의 결합은 사마르의 친구가 되는 레이의 조교 야스민에게는 매우 이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여겨진다. 야스민은 레이와 사마르와의 심상치 않은 관계를 눈치 채고 “내가 너라면, 나는 그때까지 그를 전염병처럼 멀리할 거야. 고향에 가봐. 너처럼 정상적인 수단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부부간에 종족이나 종교가 뒤섞이는 건 비정상적으로 보여, 모두를 짜증하게 한다고”(133)라고 말한다. 이들은 인종과 종교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도 별로 어울리지 않는 한 쌍으로서 취급된다.

번역자는 옮긴이 해설을 통하여 작가가 서구 사회에 살면서 무슬림 여성으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이슬람 신앙을 제대로 알리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작가가 “그런 목적에 가장 적절한 소설적 도구로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사용”(285)한다고 하면서, “대화가 소설의 중심이 될 것이며, 그 대화의 음조가 무척 온화하고 차분할 것이라는 작가의 의도”(285)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실제 레이와 사마르의 상대방에 대한 열정은 이들 사이에 놓인 심리적, 물리적,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이들의 관계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번역자가 선택한 합쇼체의 전경화는 이러한 어조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2.3 종속적인 무슬림의 여성상 탈피

『번역사』에 나타나는 두 주인공의 관계는 반오리엔탈리즘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 서사는 백인 남성이 유색인 여성을 구원한다는 것으로 레이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서구적 학자의 유형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레이의 몸도 허약하며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마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결국 레이가 개종을 함으로써

“관습적인 구출 내러티브를 뒤집고 갈색 피부의 여자가 백인집단으로부터 백인을 구한다는”(Smyth 2007: 177) 이야기를 완성시킨다. 사마르는 극 초반 남편을 잃어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지만 극이 전개되면서 레이에게 개종을 요구하며 칭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물로 발전하면서 서구 로맨스물의 전형적인 여성상을 탈피하며, “플롯을 진행하는 주체”(Phillips 2012: 70)로서 남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내면적 성장을 이루어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14장은 레이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는 사마르를 극적으로 표현한 지점으로서 이 둘의 대화번역의 어투도 중요성을 지닌다. 14장에서, 사마르는 레이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가 신앙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자 레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ST4

She paused and then said, ‘Everything in my religion comes from this. The words of the Qur’an which you told me the seventh-century Pope dismissed as heresy . . . Now tell me if you believe or not.’ …[중략]…

‘Don’t say no then, not sure is better than no, don’t ever say no.’

‘It’s not in me to be religious,’ he said. ‘I studied Islam for the politics of the Middle East. I did not study it for myself. I was not searching for something spiritual. …[중략]… I believed the best I could do, what I owed a place and people who had deep meaning for me, was to be objective, detached. In the middle of all the prejudice and hypocrisy, I wanted to be one of the few who was saying what was reasonable and right.’

‘It’s not enough,’ she pressed her hands together. ‘It’s not enough. It’s not enough for me.’

He leaned and put his elbows on his knees, his face in his hands.

She said, ‘Don’t you realise how much you hurt me saying objective and detached, like you are above all of this, above me, looking down . . .’

‘No, no it isn’t . . .’ His face had a deeper colour as if he had pressed it too hard against his hands. (121-23)

TT4

그녀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제 모든 신앙은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7세기 교황이 이단이라고 일축해버렸다는, 당신이 제게 말했던 그 코란의 말씀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략]…

“그렇다면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확신하지 못한다는 게 믿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나아요, 믿지 않는다고는 절대 말하지 마요.”

“내 내면에는 신앙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난 중동의 정치를 이해하려고 이슬람을 공부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나를 알고 싶어서 그걸 공부한 건 아니지요.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내게 깊은 의미를 준 장소와 사람에게 보답하는 길은, 내가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무수한 편견과 위선 가운데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인가를 말하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녀가 두 손을 모아 함께 쥐었다.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제게 충분치 않습니다.”

그가 몸을 구부려 무릎에 자기 팔꿈치를 괴고, 손으로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객관과 공평무사함을 언급하며, 마치 맨 위에서, 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얘기할 때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기나 합니까……”

“아뇨,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눌린 것처럼 그의 얼굴빛이 아주 어두웠다. (175-78)

TT4에서 사마르가 신앙이 있는지 묻자, 레이는 대답을 회피한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평한 관점에서 종교를 해석한다는 레이의 입장은 사마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며 오히려 그런 태도가 오만하다고 레이를 비난한다. 레이는 강경한 사마르의 태도에 찢찢때고,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사마르는 수치심과 패배감을 가지고 결국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다. 14장은 박식한 레이에게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슬람에 대한 가르침을 받던 사마르가 개종이라는 화두로 레이에게 승부수를 던지면서 두 사람의 위계관계를 역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장이기도 하다.

소설 번역본에서는 사마르와 레이의 위계 관계 전복이 일정 부분 종결어미

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설 속 레이와 사마르의 총 발화 문장 중 합쇼체의 비중은 각각 51.4%, 39.4%로 (<표 4> 참조) 레이가 사마르보다 합쇼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합쇼체를 많이 사용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표 5>의 각 장별 인물들의 종결어미 사용 비중을 보면, 14장에서 사마르가 합쇼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레이의 총 발화 중 56.6%, 그리고 사마르의 총 발화 중 69.9%가 합쇼체로 번역되었다. 특히 합쇼체 중에서도 의문형 ‘~니까’는 대답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어감으로 인하여 잘 사용되지 않는데, 사마르는 합쇼체의 의문형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며 상대방에게 대답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이렇듯 사마르는 13장까지 조용히 레이의 말을 경청하고 수동적으로 이해하려 애쓰는 인물이었는데, 14장에서는 자신의 신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상대방에 대하여 바라는 바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이 때 번역자는 사마르가 합쇼체를 구사하게 함으로써 사마르의 어투에 진지함과 권위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 전형적인 무슬림 여성의 수동성에서 벗어나는 사마르의 과감한 시도가 효과적으로 강조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번역사』의 남녀 대화에 사용된 합쇼체를 번역자가 시도하는 전경화로 보고 이러한 문체의 시사점을 밝히고자 했다. 논의를 위하여 『번역사』의 남녀주인공의 대화문을 수집하여 사용된 종결어미의 총 빈도수 및 각 장별 종결어미 사용 빈도를 인물별로 나누었다. 그 결과 두 인물 모두 합쇼체의 사용 비율이 일상 구어에 비하여 매우 높았으며 대체로 남성 인물이 여성 인물보다 합쇼체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남녀 관계 위계가 역전되는 14장에서는 여성 인물의 합쇼체 사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합쇼체의 분포 양상을 인물 간의 대인적 맥락, 물리적 맥락, 인지적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번역본에 사용된 합쇼체는 다음 세 가지의 문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번역자의 합쇼체 선택은 소설 대화의 서술성과 높은 정보전달성과 깊이 관련된다. 둘째, 두 인물의 심리적, 물리적, 사회적 거리감이 합쇼체로 일정 부분 재현되었다. 셋째,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

에게 맞서면서 위계 관계가 전복되는 과정에서 여성 인물이 합쇼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렇듯 번역자가 선택한 종결어미의 분포는 인물 간의 역동적인 관계 변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합쇼체의 전경화를 통한 번역문의 문체를 탐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원천 텍스트의 어구에 대응되는 번역이라는 관점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번역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원천 텍스트 자체의 문체 분석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레일라 아부렐라의 문체는 간결하고 정제된 산문으로 시적인 문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Aboulela 2008: v, Introduction by Donovan). 따라서 작가의 아름다운 문체와 작품의 미묘한 어조를 합쇼체로만 설명하는 것은 애초에 시도하지 않았으며 또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다만 합쇼체의 전경화는 번역자가 구사한 번역문체로서, 작품의 배경과 인물들의 관계 및 어조를 번역자의 해석에 따라 능동적으로 재현한 것이며, 그 나름의 문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020년도 국내 번역문학의 출간 종수는 2,702종으로 전체 문학 분야의 출판종수(13,608) 대비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다⁴⁾. 또한 인기 있는 고전의 경우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새롭게 번역되고 있으며 독특한 문체를 가진 다양한 국가들의 문학 작품이 발굴되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어 규범의 잣대에서만 번역문체를 평가하는 것은 번역문체가 원작 고유의 문학성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연구가 기존의 언어 규범에 도전하는 창의적인 문체의 효용성을 제시하여 번역자들의 다양한 번역 전략 추구를 장려하고 번역문학의 비평 문화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제공하는 ‘2020 번역도서 분야별 종수 현황’과 ‘2020년 출판 통계’ 참고. /http://kpa21.or.kr/kpa-data/statistics/

참고문헌

- 강현석 (2011) 「해요체-합쇼체의 변이에 대한 계량사회언어학적 연구: 성별어적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9(2): 1-21.
- 권은희, 성초림 (2014) 「소설 속 대화문에 나타나는 한국어 문장종결어미 번역의 문제: 매밀꽃 필 무렵의 스페인어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2): 7-32.
- 김정호 (2008) 「1970년대 ‘합쇼체’의 남성어적 성격에 관하여: 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0: 55-79.
- 김혜경, 윤소영 (2018) 「관계 대상과 심리 변화에 따른 어투 번역 비교: 『에쿠우스』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1): 27-52.
- 김혜영 (2008) 「형태분석 코퍼스에 기반한 번역문의 높임표현 연구」, 『번역학연구』 9(4): 41-76.
- 김혜영 (2019) 「영한 번역의 종결어미 사용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7(2): 133-162.
- 노상희, 박기성 (2008) 「영,한 번역과정에서의 서법전환에 관한 연구」, 『언어학』 16(4): 111-128.
- 박재연 (2020) 「서구 소설 번역에서의 한국어 청자대우법 선택: 위대한 개츠비 번역의 하오체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68: 73-106.
- 박지순 (2019) 『현대 국어 상대높임법의 맥락 분석적 연구』, 성남: (학)신구학원신구문화사.
- 성기철 (1985) 「國語의 話階와 格式性」, 『언어』 10(1): 143-170.
- 성창섭, 율김 (2001) 『영어 문체의 언어학적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Simpson, Paul (1997) *The Scandals of Translation*, Routledge.)
- 원은하, 김성희, 전주영 (2021) 「소설 속 대화의 번역: 존대등급 종결어미의 문체적 활용」, 『번역학연구』 22(1): 81-108.
- 이경희 (2015) 「한국어 발표 담화에서의 합쇼체와 해요체 선택 양상 연구: 한국인 대학생과 한국어 학습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42: 143-172.
- 임호경, 율김 (2006) 『번역의 윤리』, 파주: 열린책들. (Venuti, Lau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Routledge.)

- 장경현 (2006) 『국어 문장 종결부의 문체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영목 (2018)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 파주: (주)문학동네.
- 차희정 (2018) 「무슬림 제인 에어와 개종한 오리엔탈리스트의 낮선 로맨스: 레이라 아부렐라의 『번역가』」, 『영미문화페미니즘』 26(2): 93-117.
- 최윤지 (2018) 「텔레비전 뉴스의 합쇼체와 해요체 사용에 관련된 언어 외적 변인 고찰: 말뭉치의 계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언어학』 26(4): 179-210.
- 최희경 (2016) 「한영 문학 번역 문체 연구: 코퍼스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3): 193-216.
- 한미애 (2011) 「문학번역에 대한 인지시학적 접근: 황순원의 『학』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205-229.
- Boase-Beier, Jean (2010/2014) *Stylistic Approaches to Translation*, third edition, Oxon & New York: Routledge.
- Brumme, Jenny and Anna Espunya (2012) *The Translation of Fictive Dialogue*, Amsterdam: Rodopi.
- Freunek, Sigrid (2007) *Literarische Mündlichkeit und Übersetzung. am Beispiel deutscher und russischer Erzähltexte*, Berlin: Frank und Timme.
- Gregoriou, Christina (2014) ‘The Linguistic Levels of Foregrounding in Stylistics’, in Michael Burke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Styl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87-100.
- Hassan, Wail S. (2008) ‘Leila Aboulela and the Ideology of Muslim Immigrant Fiction’, *Novel* 41(2-3): 298-319.
- Leech, Geoffrey and Mick Short (2007)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secon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almkjær, Kirsten (2004) ‘Translational Stylistics: Dulken’s Translations of Hans Christian Anderson’, *Language and Literature*, 13(1): 13-24.
- Phillips, Christina (2012) ‘Leila Aboulela’s *The Translator*: Reading Islam in

the West', *Wasafiri* 27(1): 66-72.

Simpson, Paul (2004) *Stylistics: A Resource Book for Students*, London & New York: Routledge.

Smyth, Brendan (2007) 'To Love the Orientalist: Masculinity in Leila Aboulela's *The Translator*', *Journal of Men, Masculinities, and Spirituality* 1(2): 170-182.

Strauss, Susan and Jong Oh Eun (2005) 'Indexicality and Honorific Speech Level Choice in Korean', *Linguistics* 43(3): 611-652.

Yoon, Sang-seok and Dong-Eun Lee (2012) 'Social Contexts of the Deferential Style of Korean',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3(4): 495-516.

<분석 텍스트>

ST: Aboulela, Leila (1999/2008) *The Translator*, Edinburgh: Polygon.

TT: 이윤재 옮김 (2013) 『번역사』, 서울: (주)문학과지성사.

[Abstract]

Foregrounding of Hapsho-style in Dialogue Translation of *The Translator* by Leila Aboulela

Won, Eun-ha · Kim, Sung-hee · Chun, Ju-young
(Kyungwoon University)

This essay focuses on the deviant uses of Hapsho-style, which is one of the Korean sentence enders. Hapsho-style is utilized in the translated dialogue of *The Translator* by Leila Aboulela. This essay sets out to explain why the phenomenon is considered as foregrounding and why the translator made use of it in the target text. It is found that Hapsho-style is used in various contexts in the translated dialogue between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in *The Translator*, which distinguishes it from spoken language because the usage of Hapsho-style is very limited in real-life conversations. After analysing the deviation in relation to literary coherence, the foregrounded Hapsho-style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ranslational stylistics. In other words, Hapsho-style maximizes the informativity of the dialogues, in addition to highlighting the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distance between two characters. Hapsho-style further represents a subversion of the stereotypical image of submissive female Muslims.

▶ Key Words: translational stylistics, literary dialogue, Hapsho-style, foregrounding, Leila Aboulela

▶ 주제어: 번역문제, 소설 대화, 합쇼체, 전경화, 레일라 아부렐라

원은하
경운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조교수

won@ikw.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문체, 번역교육

김성희

경운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조교수

sungk@ikw.ac.kr

관심분야: 문학비평, 문학번역, 번역교육

전주영

경운대학교 기초교육학부 부교수

jychun@ikw.ac.kr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ESP/BELF, 세계시민교육

논문투고일: 2021년 8월 3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